

## CIM方法 美國에서 特許등록 知的所有權 강화공세...日등 타격우려

최근 新知的所有權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美AT&T社의 벨研究所가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시스템(CIM)의 방법, 그 자체를 美상무부 特許廳에 出願, 登錄돼 이채롭다.

CIM은 세계각국의 공장에서 實用化가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법으로 자동생산시스템에다가 컴퓨터를 통신망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美國내의 자동차 및 半導體생산 공장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特許가 인정됨에 따라 모든 공장들이 이 特許에 저촉되게됐다.

AT&T社는 이에 따라 각공장에 特許料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법 337조를 이용하면 CIM을 사용하는 외국공장의 제품수입 금지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特許는 美國이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는 「生産技術」을 대상으로 낸것이기 때문에 日本등 CIM을 추진하려는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特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생산공정의 진척상황을 컴퓨터에서 컨트롤해 계획등을 작성하는 것과 함께 CAD/CAM

(컴퓨터지원설계 및 생산) 등을 활용, 全工程을 一元的으로 관리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이 特許는 아직 美國이외에 선 特許대상이 되지않는 것인데 기업들이 美國의 現地法人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에 저촉된다.

벨研究所는 이에 앞서 수학해법등을 特許로 취득하여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이번 特許취득도 美知的所有權강화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WIPO, 工所權 국제분쟁 節次 을 하반기 總會서 條約化 추진

知的所有權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WIPO가 분쟁처리 절차등을 조약화 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外紙에 따르면 파리조약등 工業所有權條約을 관장하고 있는 WIPO는 工業所有權에 대한 國際紛爭에 일정한 절차가 없어 특히 開發國들이 곤란을 겪고있는 것을 중시, 各동맹국의 意向을 타진해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WIPO총회에서 이를 정식 표명, 초안작성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WIPO가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GATT가 知的所有權에 관한 신규정을 제정하려 하는등 WIPO업무를 침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도 이같은 條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特許廳관계자는 『우리나라도 國際特許紛爭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WIPO의 이같은 내용이 문서로 공식접수는 되지 않았으나 條約化한다는데에는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特許廳 動物特許요구 拒絕

유럽特許廳(EPO)이 動物特許에 대해 尙질삼질을 했다.

外信에 따르면 EPO는 美하버드대학이 出願한 遺傳工學的으로 만들어진 생쥐에 대해 特許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